

日本에 現存하는 4권의 周本華嚴經의 變相畫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Byunsangwha(Buddha's preaching paint) of 4 volumes
of the script of 80 Avatamska Sutra present in Japan

권희경 (Hi-Kyung Kwon)*

◁ 목 차 ▷

- | | |
|-------------------------------------|-----------------------------------|
| 1. 緒論 | 3.4 太山寺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 변상화 내용 |
| 2. 네 권 사경의 形狀과 品質, 크기 | 4. 네 권 八十華嚴의 寫經變相畫의 양식적 특징 |
| 3. 네 권 八十華嚴의 寫經變相畫 내용 | 4.1 표지화 |
| 3.1 德川黎明會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 변상화 내용 | 4.2 변상화에 나타난 안료사용의 특징 |
| 3.2 大和文華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 변상화 내용 | 4.3 변상화에 나타난 양식적 특징 |
| 3.3 大和文華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 변상화 내용 | 5. 結論 |

〈국문초록〉

日本の 각 박물관에 소장 혹은 기탁되고 있는 감지금니의 네 권의 고려사경 『大方廣佛華嚴經』은 표지화에서 독특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고려시대 사경표지화는 일반적으로 3개 혹은 4개의 연화를 당초문양이 지그재그로 감고 있는데 비해, 이들 네 권의 사경은 금니로 그린 10개의 蓮華를 그린 표지화가 양식적으로 같아, 네 권 중에 그 어느 것에도 발원문은 없지만, 80화엄경 한 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의 내용에 관한 고찰을 하였고, 표지화와 변상화를 통해 양식분석을 행했다. 그 결과 제작연대를 밝힐 수 있었다. 코발트색으로 여래의 寶髮이 칠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충숙왕 13년(1326)인 泰定 三年에 發願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의 변상화와 같고, 보발 가운데 그려진 鬘珠와 입술이 완전히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귀·얼굴 윤곽선·通肩衣 사이로 드러난 가슴의 윤곽선 역시 분홍색이라는 점과 여래의 佛顔이 금니로 塗色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日本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本이나 日本 羽賀寺本 사경변상화에 나타나는 특징과 같다. 그러나 地雲紋의 양식은 忠肅王 復位年間の 작품들과 닮아, 이들 네 권의 사경은 忠肅王 복위연간의 작품이라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Four volumes of the script of the Avatamska Sutra written with golden paste on dark blue papers manufactured in Koryo Dynasty which are collected or deposited in every museum of Japan show specific features on their cover paintings.

*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hkkwon@cu.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0일

In general 3 or 4 lotus flowers are wound by arabesque patterns in zigzag on the cover paintings of Koryo scripts, whereas 10 lotus flowers painted with golden paste on the 4 volumes of these scripts are same in their style.

Though there is no prayer sentences in 4 volumes of the script,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y should belong to a set of 80 Avatamska Sutra by the results of above studies.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Byunsangwha of the script of 4 volumes of the Avatamska Sutra were discussed at first and their manufactured era should be postulated by the results of style analysis of cover paintings and Byunsangwha.

First thing that saint hair of Buddha was painted with cobalt color is same as that of Byunsangwha of Munsuchoisangsungmusenggebueob prayed in Tejeong 3rd year, king Chung Suk 13th year(AD 1326). Second thing that the beads in topknot of saint hair and lips were painted completely with pink color, and ears, face outline as well as bosom outline disclosed through monk's cloth were also painted with pink color, furthermore the last thing is that Buddha's face was coated with golden paste. All of these things are same as shown in the characteristics of Byunsangwha of the scripts of Kanezawa Daishoji, Matsue Tenrinji and Haga Tera collection in Japan. However, since the cloud pattern style of Byunsangwha of the script is similar to that of the Byunsangwha manufactured in reinstatement era of king Chung Suk,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se 4 volumes of script should be manufactured in the reinstatement era of king Chung Suk.

1. 緒論

日本の各 박물관에 소장 혹은 기탁되고 있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네 권의 사경 『大方廣佛華嚴經』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다른 사경들과는 달리 표지화에서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로, 일견해서도 한 질의 고려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들은 德川黎明會 所藏品으로 德川美術館이 보관하고 있는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과 大和文華館 所藏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제36권, 太山寺 所藏으로 大阪市立美術館 寄託되어 있는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경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사경의 표지화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으나, 표지화 연구에 집중해 있을 당시만 해도 아직 海印寺 소장의 고려 忠肅王 13년(1326)인 泰定三年에 發願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을 조사하기 전이었으므로 연대가 확실한 사경표지화 양식을 통해 연대를 추정하는데 그쳤다. 특히 충숙왕 복위 6년(1337)에 제작된 湖巖美術館所藏의 紺紙銀泥 사경인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 표지화의 양식적 특징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어, 忠肅王 復位年間の 작품으로 추정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변상화에 관해서는 여래의 보발이 코발트색으로 칠해진 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양식

연구는 학계에 발표한 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에 의해서도 이들 네 권 『大方廣佛華嚴經』의 변상화에 관해 연구 발표된 바가 없으므로 이들 『大方廣佛華嚴經』 변상화의 내용분석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 보고, 이러한 내용·양식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대 확실한 작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대를 추정코자 한다.

2. 네 권 사경의 形狀과 品質, 크기

徳川黎明會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 大和文華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제36권, 太山寺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의 사경은 모두가 감지금니의 첩자본 사경이다.

크기에 있어서는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은 31.1×10.9cm, 변상화 세로가 20.9cm이고,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은 30.8×10.9cm, 변상화 세로가 20.7cm,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은 30.9×11.1cm, 변상화 세로가 20.8cm,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은 30.8×10.91cm, 변상화 세로가 20.71cm이다. 이와 같이 사경의 크기로도 이들 사경이 한 질의 사경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네 권 사경은 각 권마다 4페이지에 걸쳐 화려한 변상화가 그려져 있고, 이 변상화가 끝나는 다음페이지의 표제 다음 行에는 「于闐國三藏實叉難陀」라는 기록이 있어, 周本華嚴經인 80화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唐의 則天武后시대¹⁾에 완역되었다고 하여 唐經이라고도 하는 周本華嚴經은 당시대의 實叉難陀에 의해 三十九品이 완역된 경전으로 총 80권이다.

東晉의 佛馱跋陀羅에 의해 번역된 旃本華嚴經을 60화엄이라고 칭하는데 비해 이를 80화엄이라고도 한다.

3. 네 권 八十華嚴의 寫經變相畫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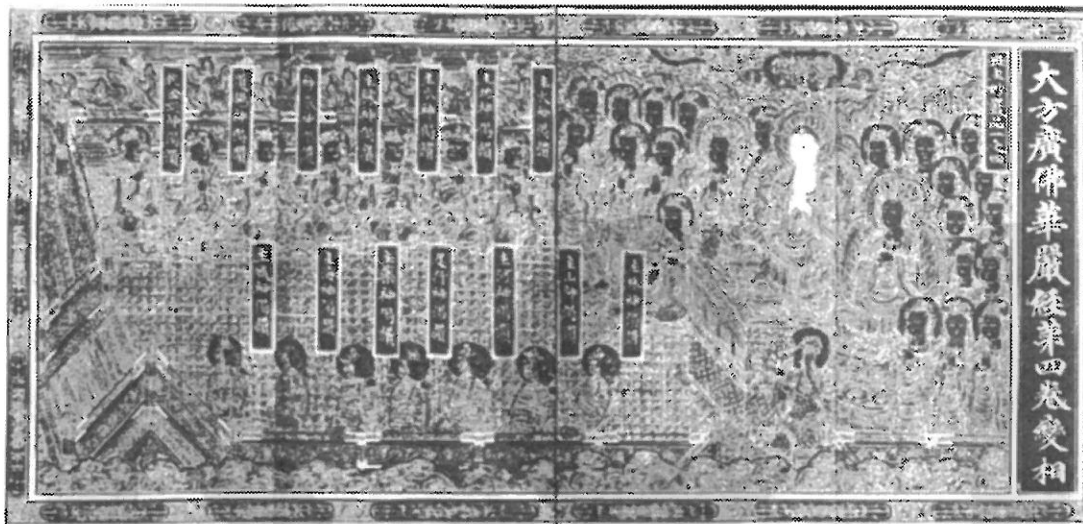
이들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들은 가장자리에는 바깥쪽으로부터 태선-세선, 세선-태선-세선으로 장식된 윤곽선 속에 금강저와 갈마가 교대로 그려져 있다.

1) 695년에서 699년 사이에 완역됨.

변상화의 향우에는 세선-태선-세선으로 장식된 윤곽선 속에 「大方廣佛華嚴經第〇〇卷變相」이라는 변상화표제가 쓰여지고, 이 변상화표제에 잇대어서 각 권에 수록된 각품의 명제가 쓰여져 있다.

변상화의 형식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에는 설법도가 그려지고, 왼쪽에는 당해 경전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다.

3.1 德川黎明會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 변상화 내용



변상화의 향우에는 세선-태선-세선으로 장식된 윤곽선 속에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卷變相」이라는 변상화표제가 쓰여지고, 그 표제에 잇대어서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世主妙嚴品一之四」라고 적혀 있다. 80화엄경에서 「世主妙嚴品」이 제1권에서 제5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전은 제4권이므로 변상화도 「世主妙嚴品」의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우에는 보탁을 앞에 두고 智拳印을 하고 앉아 있는 毘盧遮那如來와 그 주변을 둘러싼 보살들이 그려져 있다. 보탁 위에는 가운데 향로가 놓여지고, 그 양쪽으로 공양물을 담은 보완이 놓여져 있다.

이러한 설법도의 왼쪽으로는 2단에 걸쳐서 14구의 신장상이 그려져 있다.

이들 神將像 옆으로는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각 신중상의 명칭을 쓰고 그 아래 偈讀²⁾이라고 덧붙여 적고 있는데, 이는 이들 신중들이 世主의 정각을 揭讚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단으로 그려 넣은 신중상 중에서 위쪽에는 主火神, 主地神, 主水神, 主稼神, 神衆神, 道場神, 執金剛神이 그려지고, 그 아래쪽에는 主林神, 主山神, 主河神, 足行神, 主藥神, 主海神, 主城神이 그려져 있다.

3.2 大和文華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 변상화 내용



이 사경변상화 역시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五卷變相」이라고 쓰여진 변상화표제에 붙여 서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十地品第二十六之二」라고 쓰여져 있다.

향우에는 거의 2페이지에 걸쳐 설법도가 그려져 있는데, 보타를 앞에 두고 智拳印을 하고 앉아 있는 毘盧遮那如來와 그 주변을 둘러싼 보살들이 그려져 있다. 보타 위에는 향로와 공양물이 놓여져 있으며, 보타의 향좌에 앉은 3구의 보살상 중 맨 뒤편의 보살은 겹쳐 그리기로 인해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2구의 보살상 손에도 공양물을 담은 보완이 들려져 있다.

이들 설법도의 중간, 변상화의 제2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金剛藏菩薩」, 「解脫月菩薩」이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는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의 經說의 내용이 金剛藏菩薩이 解脫月菩薩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해인사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에는 각 신중상의 명칭을 쓰고 그 아래 揭讚이라고 쓰고 있다. 張忠植, 『高麗華嚴版畫의 世界』(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9), 도판4.

제3페이지와 제4페이지의 위쪽에는 산화로 바탕화면을 이루고 있는데,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二地十善十惡」, 「三地忍行十八變」이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 경전의 내용은 金剛藏菩薩이 解脫月菩薩에게 설하는 내용으로 佛者が 離垢地에 들기 위해서는 열 가지 깊은 마음을 내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第二地에 해당하는 離垢地の 十善十惡의 내용과 第三地에 해당하는 發光地の 忍行十八變의 내용이다.

제3페이지의 향우에는 2구의 나한과 신장상이 그려져 있고, 향좌에 「二地十善十惡」이라고 쓰여진 명찰 아래쪽으로는 인물들과 귀신들이 그려져 있다. 「二地十善十惡」 바로 향우에는 여래가 그려져 있으며, 이 여래를 향해 한 인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여래는 보자기에 쌓인 공양물이 향로 양쪽으로 놓여 있는 보탁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3페이지의 이러한 내용은 十地중에 第二地에 해당하는 離垢地の 내용으로 離垢地에 들어가려면 十善을 행해야 하며, 十惡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으로 태어날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귀의 세계에 태어날 원인이 된다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다.

이들 인물들과 귀신이 그려진 아래쪽으로는 2구의 말과 소 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축생으로 태어남을 상징화한 것이고, 보살이 파계의 허물에서 멀리 벗어나 보시와 계행이 청정함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황금의 화로가 이들 축생 옆으로 그려져 있다. 황금의 화로를 중심으로 향우에는 보살, 향좌에는 화로에 불을 붙인 天神이 그려져 있고, 향로 아래쪽에도 4구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제4페이지의 「三地忍行十八變」은 十地중 第三地에 해당하는 發光地の 내용으로 金剛藏菩薩이 解脫月菩薩에게 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發光地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 깊은 마음을 내어 四禪定을 닦아 三界를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發光地에 머물렀을 때도 욕심과 악한 일과 不善法을 여의고 覺觀도 여의고, 관찰도 멀해야 하는 인고의 18변상을 그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맨 위쪽 향우에 산화가 2/3정도까지 그려져 있다.

향좌 맨 위쪽 구석에는 엮어져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고통 받는 중생을 그린 것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 화덕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는 부처의 한 구절 법으로 보살행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비유로 「지옥의 큰불구덩이에 들어가 어떤 고통도 받을 수 있는데, 작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쯤이야…」 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고통이 없음을 밝힌 내

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 보살 여래들이 그려져 있으며, 이들 여래와 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각각 그려져 있다. 이는 發光地에 들어가려는 보살들은 욕심과 악한 일 선하지 못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색계나 무색계에 머문다는 내용과 發光地에 머물 때, 서원의 힘으로 수많은 부처를 친견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는 신장상과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이는 법의 한 계승만 얻어 보살행을 밝혀도 제석천왕 범천왕의 지위를 얻는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3.3 大和文華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 변상화 내용



이 사경변상화 역시 「大方廣佛華嚴經第三十六卷變相」이라고 쓰여진 변상화표제에 붙여서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속에 「十地品第二十六之三」라고 쓰여져 있다.

향우에는 寶卓을 앞에 두고 智拳印을 한 毘盧遮那如來를 중심으로 보살들이 그려진 설법도가 제1페이지로부터 시작하여 제3페이지의 1/4정도까지 그려지고 있다. 보타 위에는 향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보자기에 싼 공양물이 놓여 있다.

제2페이지에는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金剛藏菩薩」이 기록되고 있어, 이 경전의 敎說者가 금강보살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제3페이지에는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 속에 「第四焰慧地」, 「第五難勝地」라고 쓰여져 있어, 이 경전에서는 十地중 第4地인 焰慧地和 第5地인 難勝地의 내용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第四焰慧地」라고 쓰여진 명찰 향좌에 화려한 가사를 입은 불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焰慧地에 들어가려면 法明門을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을 설파한 것으로 衆生界, 法界, 世界, 虛空界, 識界, 欲界, 色界, 無色界, 廣心信解界, 大心信解界를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과 보살이 십계를 청정이 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아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 방편과 지혜에 따라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대표하는 불자의 모습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승려상 아래쪽으로 3인의 인물이 삼각구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불타고 있는 화덕이 이들 인물의 중심에 그려져 있다. 화덕 앞에는 작은 대 같은 것이 놓여 있다. 화덕을 중심으로 향좌에는 몸이 화덕에 가려진 인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왼손으로 금방 불에서 끄집어낸 금붙이를 臺 위에다 올려놓고 두드리려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화덕 향우에는 금광석을 옮기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³⁾ 이는 백천역 那由他的 劫 동안에 善根을 닦아서 더욱 밝고 청정하니, 이것은 마치 은장이가 眞金을 잘 鍛冶하여 莊嚴을 만들어 내면 다른 금이 이를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그림은 진금을 鍛冶하는 장면이다. 이들 진금을 鍛鍊하는 그림 아래쪽으로 2軀의 보살이 보이는데, 이는 진금의 이야기에 이어서 焰慧地에서 닦은 善根은 그 이전에 경전에서 나타난 그 어떤 地의 善根으로는 미칠 수 없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제3페이지에 「焰慧地」과 함께 「第五難勝地」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 명찰의 향우에는 가운데 향로를 중심으로 向右에는 공양물을 담은 寶盃이, 향좌에는 보자기에 싼 공양물이 놓여 있는 보탁을 앞에 두고, 5軀의 여래가 그려져 있고, 보탁 앞에는 1軀의 보살이 측면향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難勝地에 머물게 된 보살이 지혜를 얻어 일체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진여의 세계에 순종한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여래의 향좌에 해당하는 제4페이지 위쪽에는 산화가 그려져 있으며, 화염에 휩싸인 탑이 그려져 있고, 제4페이지의 가장 구석자리에 이 탑을 향해 예배하는 2軀의 보살이 그려

3) 상계서,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p.65. 장충식교수는 이 부분의 설명에서 "승상의 바로 아래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사람이 무슨 물건에 의지하여 작업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그림이 불명확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시대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사경과 판경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경은 정중하게 그려진다는 점, 특히 金·銀字寫經의 변상화는 더욱 정중하게 그려진다는 점을 이러한 차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져 있다. 이 탑은 3업을 성취한 부처의 장엄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부처의 세계를 본받아 부지런히 보시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 보살행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살의 아래 쪽으로 「焰慧地」에서 보여준 진금의 단야장면과 같은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은 난승지에 다시 법을 듣고 다라니를 얻어서 듣거나 범사가 되어 이 難勝地에 있게 되면 那由他の劫안에 닦은 선근이 더욱 청정이 빛나게 되니, 진금을 갈고 닦으면 더욱 밝고 깨끗하여진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보탑을 앞에 둔 5軀의 여래 아래쪽에는 「第四焰慧地」라고 쓰여진 명찰 향좌에 화려한 가사를 입은 불자의 모습과 닮은 인물이 좌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보살행을 대표하는 불자로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불자를 중심으로 삼각구도로 2구의 천신상이 측면향으로 끌어왔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들 천신상은 동시에 4페이지의 아래쪽 가장 구석에 그려진 3구의 여래상을 향하고 앉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여래의 앞에는 향로와 공양물이 담긴 寶盥이 놓인 보탑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별들이 허공에 있어 바람으로 유지되고 변동 없듯이, 연꽃에 물방울이 붙지 않듯이, 보살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혼하게는 도솔타의 천왕이 되어, 외도들의 나쁜 소견을 꺾어버린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3.4 太山寺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 변상화 내용



이 사경변상화 역시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二卷變相」이라고 쓰여진 변상화표제에 붙여서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속에 「十定品二十七之三」 쓰여져 있다.

제2페이지까지 설법도가 그려져 있는데, 보타를 앞에 두고 智拳印을 한 毘盧遮羅如來가 보살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다. 보타 위에는 가운데 향로가 놓여 있으며, 그 양쪽으로 공양물을 담은 寶盃이 놓여 있다.

향좌에는 각각 경전의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제3페이지 위쪽으로 태선과 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의 구획 속에 「以呪起屍」, 그 옆으로 「梵王宮現大千界事」라고 쓰여져 있으며, 그 아래쪽은 「鬼所持人」이라고 쓰여져 있고, 3페이지 왼쪽 끝으로 「師子口出斯陀河」, 「象口出恒伽河」라고 적혀 있으며, 제4페이지 상부 중간에는 「天戰脩羅天勝」, 그 아래쪽에는 「馬口出縛薑河」, 이 두 개의 명찰 향우 중간에 「牛口出信度河」라고 적혀있는 명찰이 있다.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의 내용은 一切衆生差別身三昧와 法界自在三昧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以呪起屍」 「鬼所持人」 「梵王宮現大千界事」 「天戰脩羅天勝」은 一切衆生差別身三昧의 내용이고, 「師子口出斯陀河」 「牛口出信度河」 「馬口出縛薑河」 「象口出恒伽河」는 法界自在三昧의 내용이다.

먼저 제3페이지에는 「以呪起屍」과 「鬼所持人」이라는 명찰이 아래위로 보인다.

제1·2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설법도 옆으로 양유 위쪽에 그려진 사람과 귀신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양유 아래쪽에도 사람과 귀신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양유 윗부분에 그려진 사람과 귀신은 「以呪起屍」의 내용으로 「죽은 송장이 주문의 힘으로 일어나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짓는 일을 성취하니, 송장과 주문이 다르지만 능히 화합하여 저런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살이 삼매에 머무르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양유 아래쪽에 사람과 귀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림은 「鬼所持人」의 명찰 내용으로 「사람이 귀신에게 잡히면 몸이 떨어져 스스로 진정치 못하니, 귀신은 몸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의 몸이 떨리게 하는 것과 같으니, 보살이 제 몸에서 선정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고 다른 사람 몸에서 선정에 들어가 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以呪起屍」라는 옆으로 화려한 건물이 보이는데 이는 건물 향좌에 보이는 「梵王宮現大千界事」라는 명찰의 내용으로 妙光大梵天王이 사는 궁전이다. 궁전에는 3천 大天의 모든 세계와 四天下에 있는 八部神衆의 궁전이기도하다. 보살도 일체중생의 차별된 몸, 삼매에 머물러서 세계를 알고 부처를 만나고 갖가지 중생을 제도하고 갖가지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한 비유의 구절이다.

「梵王宮現大千界事」라는 명찰 옆으로 산화가 보이며 신중들이 그려져 있는 한가운데에

「天戰脩羅天勝」이라는 명찰이 보인다. 이는 보살도 요술 같은 지혜를 이루니, 차별 없는 선정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비유한 것으로 33天 즉 제석천이 阿修羅와 싸운 내용을 그리고 있다. 「天戰脩羅天勝」이라는 명찰 향좌에 보이는 天이 제석천이고, 향우에 인물이 阿修羅로 볼 수 있겠다.

「梵王宮現大千界事」라는 명찰과 「天戰脩羅天勝」이라는 명찰 아래쪽으로 「師子口出斯陀河」「牛口出信度河」「馬口出縛薑河」「象口出恒伽河」라는 명찰이 보이는데, 이들 내용을 그린 것이 양유 옆으로 보이는 이중의 정방형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방형은 이중으로 그려져 있는데, 안쪽의 정방형은 용왕의 궁전을 그린 것이다. 이 용왕의 궁전 둘레를 다시 세선으로 표현한 정방형이 있는데, 그 세선 위쪽에는 사자를 아래쪽에는 소를 향좌에는 말을 향우에는 코끼리를 그리고 있다. 이는 아나바답타의 큰 용왕의 궁전에서 四江이 흘러나오는데 흐리지도 않고 잠란하지도 않고 때가 없고 빛이 깨끗하기가 허공 같으며, 사면에는 각각 한 개의 어귀가 있고 어귀마다 강이 하나씩 흐르는데 코끼리 어귀에서는 恒伽河가 흘러나오고 사자 어귀에서는 斯陀河가 흘러나오고 소 어귀에서는 信度河가 흘러나오고 말의 어귀에서는 縛薑河가 흘러나온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鬼所持人」의 명찰 아래쪽에 마주 대하고 앉아 있는 사람과 귀신 옆으로는 파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 파도와 이어져서 제4페이지 아래쪽에는 용이 그려져 있다. 이는 「아나바답타의 용왕이 용에게 뜨거운 번뇌를 아주 여위게 했듯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변상화의 아래쪽으로 지운문이 그려져 있다.

4. 네 권 八十華嚴의 寫經變相圖의 양식적 특징

4.1 표지화

이들 네 권의 사경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표지화의 양식에서 여타의 사경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려시대 사경표지화가 3개 혹은 4개의 연화를 당초문양이 지그재그로 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식인데 비해, 이들 네 권의 사경은 10개의 蓮華가 위쪽으로부터 2개 1개 2개 2개 1개 2개가 그려져 있어,⁴⁾ 고려사경의 표지화 중에서는 가장 독특한 양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표지화도 연판 표현과 당초에서 보여주는 양식적 특징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湖巖美術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과 닮았고,⁵⁾ 日本 福祥寺가 所藏하고 있는 충숙왕 복위의 5년(1336)에 제작된 『大方廣佛華嚴經』과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화심부분은 충숙왕2년(1315)에 제작된 日本 天倫寺 所藏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나, 충숙왕12년(1325)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와 같아, 표지화만으로 볼 때도 일단 충숙왕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

4.2 변상화에 나타난 안료사용의 특징

變相畫에 있어서도 표지화와 마찬가지로 『大方廣佛華嚴經』의 변상화의 일반적 양식과는 틀리는 점을 들 수 있으니, 여래의 두발이 코발트색으로 칠해졌으며, 계주와 입술 등이 朱色으로 칠해진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네 권의 사경의 양식적 특징을 먼저 안료사용으로부터 밝혀보고자 한다.

德川黎明會 所藏品으로 德川美術館이 보관하고 있는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과 大和文華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 제35권, 太山寺 所藏으로 大阪市立美術館 寄託되어 있는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은 여래의 보발이 확실하게 코발트색으로 칠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의 여래 보발은 바탕색인 감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원래는 코발트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계주 주변에 아직도 코발트 색이 남아 있어 보발의 원래 색이 코발트색이었던 것이 지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변상화 이외에도 여래와 보살의 두발에 코발트색을 칠한 사경이 있으니, 바로 海印寺 소장의 고려 충숙왕 13년(1326)인 泰定 三年에 發願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의 변상화가 그것이다. 이 사경의 경우는 여래뿐만 아니라 보살과 여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指空의 寶髮도 코발트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러므로 역시 이들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은 안료의 사용 면에 있어서 고려 충

4) 權憲耕, 「연대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II)」, 『書誌學研究(書誌學會)』 第25輯(2003. 6), pp.40-42.

5) 상계서, 「연대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II)」, p.41.

6) 權憲耕, 「연대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표지화에 관한 연구(I)」, 『書誌學研究(書誌學會)』 第24輯(2003. 6), pp.27-28, p.32.

숙왕 13년(1326)에 제작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의 변상화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코발트색으로 칠해진 보발 가운데 그려진 髻珠와 입술은 완전히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얼굴의 윤곽선·귀의 윤곽선·通肩衣 사이로 들어 난 가슴의 윤곽선과 가슴 한가운데 있는 卍자는 朱色으로 그려져 있다. 여래의 경우 佛顏 역시 금니로 도색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이 있으니,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金澤 大乘寺 松江·天倫寺에 분산 소장된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의 변상화와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 소장의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 변상화이다.

이들 두 질의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의 여래의 경우도 이들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보발 가운데 그려진 계주와 입술은 완전히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귀·얼굴 윤곽선·통견의 사이로 들어 난 가슴의 윤곽선 역시 분홍색이다.

天倫寺 소장의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경우는 이들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에서 보여주는 가슴 한가운데 분홍색의 卍자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같다.

또한 海印寺 소장의 고려 충숙왕 13년(1326)인 泰定 三年에 發願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의 변상화에서도 여래, 보살은 물론 무릎을 꿇고 앉은 지공의 모습에서조차 얼굴은 금니로 도색했고, 얼굴의 윤곽선·귀의 윤곽선은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통견의 사이로 들어 난 가슴의 윤곽선도 분홍으로 그려져 있다. 여래의 경우는 보발에 그려진 계주 역시 분홍색이다.

이러한 안료에서 보여주는 특징과 더불어 충숙왕대의 기록과 연결시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코발트색의 여래 보발과 계주·입술 등에 나타난 朱色이 갖는 의미를 문헌에 나타난 기록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東文選』 제65편의 「禪源寺毘盧殿丹青記」에 의하면 「大德 己巳年⁷⁾ 가을에 불이 나서 명당과 佛廟가 타버렸다」고 전제하고, 「몇 년 뒤에 복구되었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여, 흙과 나무 그대로 있어서 보기에 흉했으나, 사람이 세 번 갈리도록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菴和尚이 절에 들어와 門人 奎忍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어 송나라에 가서 丹

7) 大德年間에는 己巳年이 없고 乙巳年(1305)이 있음.

腹⁸⁾을 사오게 하였다. 쫓겨온 뒤 돌아 왔고, 충숙왕 11년(1334)인 泰定 甲子 가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그 이듬해인 충숙왕 12년(1325)인 泰定 乙丑 봄에 동서벽에 기묘한 40신 중상을 그렸다. 雪峰和尚이 다음의 주지의 자리를 계승하여, 전당의 화려함에 감탄했으나, 전당이 작고 낮아 이를 넓혔고, 충숙왕 14년(1327) 겨울 북벽에 55명 知識의 和尚을 그리고, 기둥과 창문 난간에 칠을 하여 환하게 하였다. 무늬 있는 새와 채색한 동식물을 그리고 기둥 서까래 동자기둥에도 채색의 그림을 그렸고 담벼락에도 여래 천신 인신 귀신 등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고, 「이때 班頭 魯英은 집에 그림을 그렸고, 산인 鶴仙은 동벽과 서벽에 그림을 그렸다. 전후하여 五彩 什物을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충숙왕 때는 채색의 사용이 상당히 넓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丹腹과 같이 고려에서 구하기 어려운 채색을 구하기 위해 남송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구입 할 만큼 채색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러므로 前代에 佛事를 일으켜 겨우 건축하는데 그쳤던 것을 이 시대에 와서 단청을 하고 佛殿내에도 드디어 아름다운 채색의 그림을 그려 단장하듯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충숙왕 시기야말로 채색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만큼 채색의 사용도 상당히 넓게 유행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 네 권의 『大方廣佛華嚴經』이 코발트색과 朱色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숙왕대의 작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금니를 많이 사용한 표지화와 변상화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 네 권의 八十華嚴의 사경표지화는 은니가 전연 사용되지 않은 금니만으로 그려졌으며, 그것도 거의 여백을 남기지 않고 10개의 연화와 이를 휘감고 올라가는 넝쿨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變相畫에 있어서도 금니가 거의 여백 없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와 관련하여 『益齋亂藁』 第五卷의 「金書密教大藏序」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기록에 의하면 「불경은 중국으로부터 번역되어 들어와서 그것이 數萬卷이나 되었다. 忠肅王때 數萬卷의 경전의 근거가 되는 陀羅尼經 90권을 금니로 寫成했으며, 奉翊大夫 判內府寺事 上護軍 羅英秀로 하여금 舊本藏經의 여러 경전에서 교정을 보고 바로 잡아 40권을

8) 丹腹이라고 하는 이 안료는 丹砂라고도 하는데,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로서 붉은 채색을 일컫음.

더 추가하여 130권의 金字密教大藏經을 寫成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과 연관시켜 생각 해 볼 때, 여백을 남기지 않고 금니로 그린 이들 네 권의 八十華嚴 사경의 표지화나 변상화가 충숙왕대 사경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독특한 양식으로 그려진 표지화의 금니 사용은 왕실에서 130권이던 金字密教經典이 제작되던 이 시기에나 가능한 양식이었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지 않을 수 없다.

4.3 변상화에 나타난 양식적 특징

위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이들 네 권의 80화엄경의 변상화는 안료사용의 특징상 일단 충숙왕대에 제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표지화의 연화당초문의 구성이 독특하지만 이들 문양의 양식적 특징은 역시 충숙왕대의 연화당초문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미리 밝혀두었다.

이들 네권의 80화엄경이 충숙왕대에 제작된 사경이라고 한다면 충숙왕대의 연대 확실한 사경변상화와 양식적으로 비교분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숙왕대의 초년으로부터 복위년간에 이르기까지 발원문에 의해 製作年代를 알 수 있는 『大方廣佛華嚴經』의 사경변상화로서 이들 네 권의 80화엄경 변상화처럼 설화적이고 전설적인 내용을 情景的으로 그린 사경변상화와의 비교분석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나 설화적이고 전설적인 내용을 情景的으로 그려진 『大方廣佛華嚴經』의 사경변상화로서는 紀年作이 될 수 있는 충숙왕 초·중반을 대표할 작품은 없고, 충숙왕 복위년간의 작품으로 忠肅王 復位 3년(1334)에 제작된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과 忠肅王 復位6년(1337)에 제작된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의 사경변상화가 있을 뿐이다. 이들 변상화는 향우에 여래설법도를 그리고 향좌에 경전의 내용을 그린 이들 네 권의 80화엄사경 변상화와는 체제가 틀려 비교하기에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의 연대 추정을 위한 양식분석을 위해서는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가 아니더라도, 향우에 설법도를 그리고, 향좌에는 경전의 내용을 설화적이고 전설적인 내용을 情景的으로 그린 사경변상화와의 양식비교가 필요하다.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는 아니지만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가진 사경변상화로서 忠肅王 2년(1315)에 제작된 金澤 大乘寺와 松江·天倫寺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사경변상화와 小浜 羽賀寺 所藏의 『妙法蓮華經』 제

7권본 1부 변상화, 그리고 전술한바 있는 해인사소장의 『文殊最上乘無生界法』이 있다. 이들과 아울러 충숙왕복위 년간에 제작된 상술한 두 점의 『大方廣佛華嚴經』의 사경변상화까지를 양식적으로 비교분석 한다면 이들 네 권의 80화엄의 사경변상화 보다 확실한 연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네 권의 80화엄경을 양식적으로 분석코자 한다.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를 먼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과 小浜 羽賀寺 所藏本 海印寺 所藏本과 더불어 양식적으로 비교분석 해 보면 여래의 광배 속을 메운 곡선 사용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小浜 羽賀寺 所藏本과 거의 동일하며, 여래의 무릎을 외문으로 처리한 점에 있어서도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小浜 羽賀寺 所藏本, 그리고 海印寺의 사경변상화의 특징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수미단의 표현에 있어서 금속으로 난간을 장식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의 특징이 金澤 大乘寺 松江·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의 양식과 동일하다.

또한 이들 네 권의 80화엄사경 변상화에 있어서 수미단으로 오르는 계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小浜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의 계단과 양식적으로 같다. 이러한 수미단의 계단양식은 佐賀縣立博物館에 寄託品이나 根津美術館本의 사경변상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충혜왕대를 거쳐 공민왕대초기까지 그대로 계속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왕 3년(1377)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제7권의 사경변상화에 이르면 계단에 화문이 그려지게 되어 양식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조선 초까지 계속된다.

여래의 두광과 신광의 양식에 있어서는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의 경우, 두 개의 외선과 한 개의 내선 속에 점열문을 장식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에 비해 忠肅王 12년(1325)에 제작된 羽賀寺 所藏本은 두 개의 외선과 한 개의 내선 속에 점열문이 장식되고 있는 양식과는 달리, 외선 밖에 다시 나선형을 장식하고 있어,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과는 완전히 틀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네 권의 80화엄경 변상화의 신광과 두광은 바로 羽賀寺 所藏本의 두광과 신광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羽賀寺 所藏本의 頭光과 身光보다는 더 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숙왕복위 3년(1334)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과 충숙왕복

위 5년(1336) 제작된 『大方廣佛華嚴經』 제31권에서는 애석하게도 여래가 그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의 여래의 두광과 신광과의 양식 분석은 불가능하다.

네 권의 80화엄사경 변상화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小浜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와 양식적으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地雲紋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에 나타나는 地雲紋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の 사경변상화에 나타나는 지운문과는 판이하게 틀리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 그리고 海印寺 所藏本の 地雲紋은 양쪽에서 渦紋형으로 말려 올라가는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日本 京都博物館에 기탁되어 있는 寶積寺 所藏本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의 변상화에서 보여주는 地雲紋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권의 80화엄사경 변상화에 나타나고 있는 地雲紋은 渦紋이 셋 혹은 넷씩 한 덩어리로 뭉쳐 그려진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충숙왕 복위년간에 제작된 두 점의 『大方廣佛華嚴經』 사경변상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地雲紋의 양식은 이후 양식적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忠惠王 元年(1340년)에 제작된 日本 鍋島家소장으로 현재 일본 佐賀縣立博物館에 寄託되고 있는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 사경변상화는 물론, 日本根津美術館소장의 공민왕 22년(1373)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 사경변상화 이르기까지 계속되다가 禰王代에 와서야 달라진다. 禰王 3년(1377)에 제작된 호림박물관소장의 『妙法蓮華經』 제7권본 1부나 우왕 11년(1385)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妙法蓮華經』 제7권에 오면 渦紋이 셋 혹은 넷씩 한 덩어리로 뭉쳐져 그려지는 점은 같으나, 셋 혹은 넷씩 한 덩어리로 뭉쳐져 그려진 와문을 바깥쪽에 파상문으로 한번 더 둘러싸는 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에 있어서 여래 앞에 놓인 보탁과 그 위에 놓인 지물들을 살펴 보면 향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공양물 담은 寶盃이 놓인 점에 있어서는 네 권의 80화엄사경 변상화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の 사경변상화와 같으나, 보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권의 80화엄경 변상화 중에서 『大方廣佛華嚴經』 제4·35·36권의 보탁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형상이고,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은 나머지 세 권의 사경변상화의 보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양식으로 그려진 3권의 보타은 나무로 모서리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도 엑스자로 가운데를 새긴 정방형의 나무장식이 이어져 있고, 다시 그 아래쪽으로 수실이 늘어져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천으로 장막을 두르고 있다. 이들 장막은 능형의 문양이 장식되고 있는데, 이 능형의 문양 속에 다시 문양을 장식하고 있으나, 『大方廣佛華嚴經』 제4권과 『大方廣佛華嚴經』 제36권에는 卍자의 문양이 들어 있고, 제35권에는 장막은 능형의 문양 속에 와문이 장식되고 있다. 다만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 변상화의 경우, 보타의 위부분은 거의 같으나, 수실 형상이나, 점원문으로 처리된 장막의 문양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에서 나타나는 양식과 더 닮았다. 『大方廣佛華嚴經』 제42권 변상화에 나타난 보타의 경우, 점원문이 더 많고, 섬세하게 그려진 점이 틀린다. 제42권 변상화에서 다른 세 권의 변상화와는 달리 보타의 장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변상화를 그린 화가가 여러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식적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는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의 사경변상화에서 보여주는 양식적 특징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小浜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는 여래의 두광 신광에서 보여주는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보다는 양식적으로 네 권의 사경변상화에 더 접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小浜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 역시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와는 양식적으로 완전히 틀리는 점이 있으니, 地雲紋의 양식과 보타의 양식을 들 수 있다. 地雲紋 양식은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에서 나타나는 양식과 완전히 틀리며, 충숙왕 복위연간에 제작된 두 권의 『大方廣佛華嚴經』과 같으므로 이들 네 권의 80화엄 사경변상화는 역시 충숙왕 복위년간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네 권의 80화엄은 먼저 코발트색으로 여래의 보발이 칠해져 있다는 점에서는 해인사본과 같아 충숙왕대의 작품임을 확인케 했다. 뿐만 아니라 보발 가운데 그려진 백호와 입은 완전히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귀·얼굴 윤곽선·통견의

사이로 들어 난 가슴의 윤곽선 역시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金澤 大乘寺·松江 天倫寺 所藏本이나 羽賀寺 所藏本 사경변상화에 나타나는 특징과 같아, 일단 1315년에서 1325년 사이에 제작된 사경변상화의 특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안료의 사용의 특징상 충숙왕 초기의 작품들과 시기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식적 측면에서 이미 羽賀寺 所藏本에서 頭光과 身光이 달라지는데, 이들 네 권의 80화엄의 두광과 신광도 이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雲紋에서 이들 양식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地雲紋의 특징은 충숙왕 복위연간에 제작된 두 권의 『大方廣佛華嚴經』의 특징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충숙왕 복위연간에 제작된 작품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표지화의 양식적 특징도 충숙왕 복위연간의 작품들과 같아, 이 시기에 제작된 작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КСІ